

서평

영혼이 깃든 섬; 경계인이 본
제주학을 읽는 세 개의 시선

*주강현

* 제주대 석좌교수

1. 저자의 시선
2. 번역자의 시선
3. 서평자의 시선

1. 저자의 시선

데이비드 네메스는 미국 오하이오주 톨레도(Toledo)대학 지리학과에 재직 중이다. 본서가 출간(1987년)되기 15년 전, 즉 1972년에 처음 제주도 땅을 밟아 2년간 체류를 하였고, 그 후 1980년 4월~1981년 8월까지, 1984년 9월~1985년 8월까지 제주대학교 객원교수로 부임하여 제주의 온 산천을 누비고 다녔을 만큼, 당시 제주의 원풍경을 누구보다 더 잘 기억하고 있는 학자들 중의 한 분이다. 본서 출간 전후로도 풍수를 비롯하여 제주전통문화에 대한 다수의 영문논문들을 각종 학술지와 저서에 소개하여 제주학을 서방에 알리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해 오고 있다.

저자는 특히 조선시대 신유가사상(neo-confucianism)과 풍수이론을 통하여 제주의 문화경관을 다양한 각도로 해석하면서, 이러한 정신적 토대야말로 제주의 가혹한 자연환경과 자연재해를 극복하게 했던 정신적인 원천이었으며, 지속 가능한 문화경관을 창조하고 보존하게 했던 원동력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저자가 도입한 하나의 개념이 바로 ‘각성한 저개발(enlightened underdevelopment)’이라는 말이다. 이 용어는 네메스 교수가 한라산 기슭에서 영감을 얻어 만든 철학적 개념이다. 그는 이 개념으로 과거 제주의 문화경관을 해석해 내고 있다. 즉, 제주 농민들은 이러한 지혜를 통하여 자연, 인간, 세계와의 조화로운 관계 맺음의 이치를 배웠고, 세대에 걸쳐 비록 낮은 기술력이지만 높은 효율성을 바탕으로 고된 일상생활을 지혜로 극복해 왔음을 강조하였다. 결론에 의하면, 제주의 농촌경관은 적어도 과거에는 ‘예의’를 갖추려는 ‘어진’ 백성들에 의해 만들어진 ‘정성어린’ 경관이었던 것이다. ‘정성어린’ 경관이란, 오늘날처럼 자본주의 물신화된 지경에는 도저히 떠올릴 수 없는 경관 아닌가!

한국독자들을 위한 저자서문에서, ‘이 작업은 진정 내가 좋아서 한 일이었다. 돌이켜보면 본서는 스스로 모든 것을 말했는지도 모른다. 거기서 나는 3부와 9장으로 구성된 세계의 심오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단지 영감을 얻은 단순한 매개자에 불과했다. 책이 완성된 시점에서 본서는 ‘계몽된 저개발(enlightened underdevelopment)’이라는 심오하고도 혁신적인 개념을 중심으로 독자들에게 다가가가고자 했다’고 하였다. 그는 본서가 출간되기 15년 앞서 처음

으로 제주 땅에 발을 디뎠다. ‘그곳에 발을 내딛기 무섭게 나는 주변의 압도적인 감각세계에 이끌렸다. 내가 접한 여러 이벤트에서부터 사람들까지 이 모든 것은 단순히 거부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나의 뮤지자 스승인 한라산의 정기를 받으며 이 기회를 잡았다’고 하였다. 한 외국인이 제주학을 접수하게 되는 과정을 잘 표현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그간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 등 연구비에만 의존하거나, 오로지 국제학술교류란 명목으로 뜨내기로 오고가는 많은 외국학자들과 차원이 다르다.

그가 제주 산하를 누비고 다니던 시절에는 ‘외국으로부터 유입된 강력하고 세속적인 이데올로기는 바로 내 눈 앞에서 전통적인 농촌경관을 이미 단죄하고 있었다. 새마을운동을 위시한 그 캠페인은 내게 특별한 아픔을 남겼다’고 보았다. 이 책을 쓰게된 경위를 다음의 글을 가장 압축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당시만 해도 위에서 아래로 하달된 정부 주도의 근대화 운동에 반기를 들고 나서는 일은 -심지어 온순한 비판조차도- 반역행위로 비쳤다. 어디에서고 감시의 눈길이 도사렸다. 그렇다고 나는 반역행위를 하기위해 미국으로 돌아가는 편도 티켓을 원하지 않았다. 그 상황에서 나는 그저 개인적으로 제주 근대화에 따른 심각한 면을 사상적으로나마 정리해 둘 수밖에 없었다. 당시 제주에도 몇몇 전통 중시자들이 있었는데, 그들 역시 나와 비슷한 불안감을 품고 있었다 ... 때는 이미 늦었다. 돌이킬 수 없는 문화적·환경적 피해가 속출했다, 대량소비시대가 도래했다, 신성한 계곡들은 매립되었다, 섬 내 자체 소비를 위한 곡물 생산량이 이미 바닥났다, 밭에 고가의 경운기가 들어오면서, 마구를 달고 밭을 갈던 조랑말들은 목장에 갇혔다, 뚝통시는 금지되었고, 지금은 거의 폐기되었다. 본서에서 내가 언급하고 보여주는 수공의 견고하고 독특한 농기구들은 거의 대부분 밖으로 쫓겨나, 박물관이나 차와 맥주 집 담장의 장식물 정도로 “그나마 보존되고(salvaged)” 있다. 이전에 기량을 뽐내며 자기 충족적이었던 이 농기구들의 제작자들과 소유자들은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 그들 대부분은 진보의 물결 속에서 파산선고를 해서, 물려받은 자질을 포기하고, 값싼 임금을 위해서 신성한 섬을 떠나 육지 전역에 편재한 공업도시의 공장서 일을 해야만 했었다. 학자들이 도처에서 “한국의 기적”을 환호하는 책들은 쓰고 있

을 때, 나는 본 서 행간마다 다음과 같은 통렬한 격언을 반쯤 내비추고 있었다. 즉 “모든 성공담 뒤에는 엄청난 범죄가 도사리고 있다”(공자). 바로 이것이 내가 본서를 쓸 때 처했던 상황이며 마음의 상태였다.

그는 현재의 제주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유목민적 소비주의로 들끓고 있는 중이라고 보고 있다. 그는 지구온난화에 관심이 많다. 그는 여전히 ‘현 시점에서 세계를 구할 어떤 큰 사상(big idea)이 마침내 출현하길 기대해 본다’고 하였으며, 만약 “계몽된 저개발”이란 사상이 바로 그것에 해당된다면, 우리는 이 사상을 통하여 경제성장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완벽하게 돌려놓고, 그 이데올로기와 경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이 시점에서 누군가가 산업경제발전이라는 실패한 유럽사상을 넘어선 사상을 “펼쳐 보여” 주어야만 한다고 믿는다. 한라산은 그에게 “계몽된 저개발”이라는 사상의 영감을 안겨주었다. 한라산 언저리에 새롭게 등장하는 이 번역서가 다시 새로운 영감을 독자들에게 불어넣어, 전지구적 규모의 혁명의 바람을 몰고 오기를 바라마지 않고 있다.

네메스 교수가 말하는 ‘각성한 저개발’ 사상의 언저리에는 산업경제발전이라는 실패한 유럽근대사상이 집요하게 따라다닌다. 서구의 산업경제발전 이래 선진화된 건축, 농경, 군사기술 등이 인간의 삶의 터전을 끊임없는 계획과 시험의 장으로 삼으면서 공동체를 해체하고, 사회적인 규율과 신념이 결코 고정되어 있지 않은 아노미현상을 초래하고, 이로 말미암아 인간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근현대 서구사회를 날카롭게 비판하는 대목이다. 저자는 20세기에 들어서 서구의 산업경제발전 논리가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제주농촌경관에도 파고들기 시작했다고 지적하며, 제주가 앞장서서 지속가능한 환경을 모색해 나가야한다는 경고를 잊지 않는다. 서구사회에 이 책이 나온 지 25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25년 만에 한국에서 빛을 본 이 책을 통하여 우리는 이 시점에서 제주가 과연 어떤 지혜와 사상적 토대로 현재와 미래의 문화경관을 만들고, 만들어 가야할지 스스로 점검할 의무를 짊어지게 된 셈이다.

2. 번역자의 시선

왜 서평이라면 늘 저자의 시선, 그리고 서평자의 시선만으로 완결될까. 의문이다. 그런 점에서 번역자의 시선이 매우 중요하다. 저자를 제외한다면, 번역자만큼 이 책을 꼼꼼하게 원문으로 읽어내고 용어 등의 번역에서 고민을 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어차피 우리가 원문으로 읽지 않을 바에는 번역자의 번역문에 기대는 수밖에 없고, 번역자가 왜 그런 용어를 선택하였는가하는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종종 외국의 책이 번역될 때, 왜 그 책이 선택되고 편역되고 용어가 선택적으로 고려되었는가에 관한 질문을 던져야한다. 상업적 출판이나 번역자의 상업적 행위가 아닌 이상, 우당도서관에서 이같은 인문서를 비영리적으로 출간하게 되기까지, 책의 선택과 번역에 관한 고정에 독자들의 시선을 쫓아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선²는 번역자의 몫으로 돌린다 (본서의 번역은 현재 오사카대학에서 미학을 전공하고, 프랑스 고등사범에서 오랜 동안 연구원생활을 하다고 ‘고국’, 그것도 제주도의 ‘고향’으로 돌아온 고영자박사가 책을 선택하고, 편지를 써서 동의를 얻어내고, 그리하여 출간에 이르게 되었다).

번역자가 가장 고민한 대목은 본서의 핵심어이자 사상적 토대인 ‘신유가사상(neo-confucianism)’이라는 개념의 끈이다. 저자에 따르면, 신유가사상이야말로 제주의 가혹한 자연환경과 자연재해를 극복하게 했던 정신적인 원천이었으며, 지속 가능한 문화적 경관을 창조하고 보존하게 했던 원동력이었다고 한다. 아울러 제주 농민들은 신유가사상을 통하여 자연, 인간, 세계와의 조화로운 관계맺음의 이치를 배웠고, 세대에 걸쳐 비록 낮은 기술력이지만 높은 효율성을 바탕으로 고된 일상생활을 극복해 왔음을 저자는 강조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저자가 도입한 또 하나의 개념이 바로 ‘계몽된 저개발(enlightened underdevelopment)’이라는 말이다.

번역자의 고충은 이 책의 키워드이자 수없이 반복되는 neo-confucian이라는 형용사와 neo-confucianism이라는 추상명사다. 한국말로 직역하면 정통 유교사상의 후속 개념인 신유교의/신유교주의, 또는 신유학의/신유학주의, 아니면 조선시대의 사상적 맥락을 고려하여 주자학적인/주자학, 성리학적인/성리학 등으로 옮길 수 있겠으나, 이 책에서는 아쉽게도 그 복잡하게 얽혀 있는 동양유학의 시대적,

사상적 맥락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어쩌면 상술한 의미들을 전부 내포하는 낱말로 neo-confucian / neo-confucianism을 쓰고 있다고 말해야 옳을 것이다. 이런 경위로 이 영어표현을 유학의 본토라 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우리말로 다시 옮기자하니 수많은 전문 관련어 중 어느 표현이 적절한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아 특히 비전문가인 역자로서는 곤경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 역자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용어는 ‘신유가의/신유가사상’이다. 역자의 견해.

“이 용어선택에도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본서의 특성상 이 용어 정도가 크게 보아 공자를 맥으로 하는 유학의 종교적 측면과 교학적 측면을 아우르고, 중국 한대의 정치적 이념으로서 유학사상과 송대의 학문적 완성으로서 유학사상을 전체적으로 가리켜, 오해의 소지를 덜 남길 것이라 판단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neo-confucian/neo-confucianism을 ‘신유가의/신유가사상’으로 통일하여 번역하였음을 밝힌다.”

한편, 역자는 enlightened underdevelopment라는 말도 고민하였다. 이 용어는 네메스 교수가 한라산 기슭에서 영감을 얻어 만든 철학적 개념이다. 그리고 이 개념으로 과거 제주의 문화적 경관을 해석해 내고 있다. 역자는 이 말의 저의를 심정적으로 잘 헤아릴 수 있었으면서도 결국 ‘계몽된 저개발’이란 말 정도로 밖에 표현할 수 없었음을 고백하였다. 독자들도 이런 점을 전제하고 읽어나가야 할 것이다.

네메스 교수가 말하는 ‘계몽된 저개발’이라는 사상의 언저리에는 산업경제 발전이라는 실패한 유럽근대사상이 집요하게 따라다닌다(본고 제6장 주석2 참조). 저자는 서구의 산업경제발전이래 선진화된 건축, 농경, 군사기술 등이 인간의 삶의 터전을 끊임없는 계획과 시험의 장으로 삼으면서 공동체를 해체하고, 사회적인 규율과 신념이 결코 고정되어 있지 않은 “아노미(무질서)”라 불리는 사회현상을 초래하고, 이로 말미암아 인간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저자의 근현대 서구사회를 날카롭게 비판하는 대목이다. 번역자의 다음의 말은 이 책의 전모를 잘 드러내주고 있다.

“어디 서구사회 그곳뿐이겠는가? 그 물결은 전세계로 흘러들어 인간이 진정으로 거주할 수 있는 땅이 점점 좁아지고 있음을 그는 염려한다. 이런 불안한 시대 앞에서 네메스 교수가 낸 해결책이 이 바로 이 ‘계몽된 저개발’이란 개념이다. 그 말 속에서 저자는 자연, 인간, 세계가 조화로운 관계를 맺으며, 비록 낮은 기술력이지만 높은 효율성을 바탕으로 땅을 섬기며 살아왔던 선인들의 지혜를 독자들에게 일깨워 주려한다. 흥미롭게도 바로 그런 ‘계몽된 저개발’이라는 지혜를 저자는 과거 제주농촌경관에서 읽어내고 있다. 본서의 결론에 나오는 저자의 표현에 의하면, 제주의 농촌경관은 적어도 과거에는 ‘예의’를 갖추려는 ‘어진’ 백성들에 의해 만들어진 ‘정성어린’ 경관이었던 것이다.”

3. 서평자의 시선

저자와 역자의 시선 다음에야 서평자의 시선이 오는 것이 당연한 순서이고 온당한 이치다. 왜냐하면 서평자는 본인 말고도 제2,3...이 가능하기 때문이며, 책을 읽는 독자들 누구나 서평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역사민속학』에 이 책을 소개하려는 이유부터 밝히는 것이 본 학술지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저자는 지리학자답게 현장과 문헌을 두루 살핀다는 점이다. 저자는 한라산 불로초에 관한 전설과 그 전설에 기대어 본인이 직접 그 정체를 밝히려 한라산 곳곳을 누비며 다녔다는 이야기가 나온다(제4장). 또 그는 풍수사들의 필수장비를 설명하면서, 제주에서 ‘쇠’라고 불리는 나경반 중의 하나를 제주에 사는 김해김씨 후손에게 선물로 받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제5장). 또 저자는 성읍, 고산, 한림, 대림, 수산 마을의 드림돌을 보고 그에 얽힌 마을이야기들을 소개하고 있으며(제7장), 나아가 서귀포 부근 범호촌 마을을 들며 명당자리와 ‘음택(陰宅)’에 관한 제주사람들의 풍수관을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다(제7장). 마지막 예로 그는 제주목, 정의현, 대정현의 돌하르방을 비롯한 제주의 각종 수호석상을 중국 한 왕조기의 천체도와 연결시켜 제주의 수호석상의 의미를 흥미롭게 해석하기도 한다(제8장). 현장을 종횡무진으로 다니는 것은 대개의 민속학자들

과 비슷한데, 영혼이 실린 연구를 수행한다는 점에서는 한발 앞선 선지식으로 여겨진다. 저자의 주장을 입증하는 내용들에 관해서는 미주알고주알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직접 읽는 것이 백번 설명보다 나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리학과 역사민속학이 학제적으로 거의 비슷한 영역이 존재함을 느낀다.

지금까지 서양사회에서 제주를 주제로 한 연구논문은 다수 나왔으나, ‘제주’를 본격적으로 조사·연구한 영문 저술서는 이외로 드물다. 책 타이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주를 종합적으로 다룬 역작이다. 한국학이라는 거창한 이름 뒤에서 한국의 지방을 다루는, 본격적 제주학 수준으로 써내려간 이런 역작은 의외로 없다. 제주도는 가능한 많은 타자들이 써야하며, 이 책은 엄밀한 의미에서 타자도 아닌 경계인의 시선으로 바라본 책이다(서평자는 얼마전 『제주기행』을 펴내면서 그곳에 사는 ‘삼춘’도 아니고 ‘타자’도 아닌 제주도 ‘경계인’의 시선을 강조한 바 있다).

본서에 소개되는 제주는 그 소재, 접근, 해석의 면에서 지금까지 나온 다른 그 어떤 저술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매우 독특하고 독자적이다. 어느결에 한국학계에서는 어떤 저술이 ‘독특하고 독자적’이라면 저평가되는 아주 이상한 풍토다. 학문의 근친상관을 무슨 거창한 학문의 계승이니 하는 언어도단의 용례로 위장하는 학계풍토에서 독특하고 독자적인 연구가 나오지 않는다면 학문은 스스로 고사할 것이다. 이같은 저서의 색다른 시선은 학문적 신선함, 그 자체가 아닐까. 끊임없이 혁명하라, 책은 그렇게 마음의 혁명을 재촉하는 느낌이다. 그간 나온 제주학 관련 도서들이 대부분 근친상관형 저술이라고 비판한다면 너무 지나친 비판이겠지만, 본서가 같은 접근방식의 전혀 상이함은 그런 비판이 무의미한 것이 아님을 증거해준다.

학문적 반란, 문체의 반정, 시선의 어긋남, 그리하고 벤야민이 이야기했듯 도저한 근대주의 아케이트 프로젝트가 제주땅에도 감행되는 현실 속에서 한라산에서 ‘큰사상’의 도래를 기다리는 저자의 시선에 동의하면서, 끝내 이 책을 서평으로 선택한 이유로써 말미에 첨부하고자 한다.

논문투고일: 2012년 2월 10일 / 논문수정일: 2012년 3월 13일 / 게재확정일: 2012년 3월 20일